



아이오닉 '연비 22.4km/L' 톱...SUV 최강은 니로

(하이브리드)

순위	모델명	제조사	유종	배기량	공차중량	변속형식	도심 주행연비	고속도로 주행연비	복합연비
1	아이오닉 1.6GDI 하이브리드 6DCT	현대	휘발유	1,580cc	1,380kg	자동6	22.5km/L	22.2km/L	22.4km/L
2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기아	휘발유	1,580cc	1,425kg	자동6	20.1km/L	18.7km/L	19.5km/L
3	K3 1.6디젤(4DR) 7DCT_ISG	기아	경유	1,582cc	1,335kg	자동7	17.6km/L	21.2km/L	19.1km/L
4	아반떼(AD) 1.6디젤_7DCT ISG	현대	경유	1,582cc	1,350kg	자동7	16.9km/L	20.4km/L	18.4km/L
5	엑센트 1.6디젤 DCT(4DR)	현대	경유	1,582cc	1,220kg	자동7	16.9km/L	20.3km/L	18.3km/L
6	K5(JF) 2.0GDI 하이브리드	기아	휘발유	1,999cc	1,580kg	자동6	17.7km/L	18.9km/L	18.2km/L
7	쏘나타 2.0GDI 하이브리드	현대	휘발유	1,999cc	1,585kg	자동6	17.7km/L	19.0km/L	18.2km/L
8	i30 1.6디젤 (5연계 타이머, ISG) (2015년형)	현대	경유	1,582cc	1,350kg	자동7	16.9km/L	19.0km/L	17.8km/L
9	SM3 1.5 DIESEL	르노삼성	경유	1,461cc	1,305kg	자동6	16.3km/L	19.6km/L	17.7km/L
10	말리부 1.8 HYBRID	한국지엠	휘발유	1,796cc	1,530kg	무단변속	17.3km/L	16.8km/L	17.1km/L

※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수동변속기·플러그인하이브리드·중복 차종 제외



디젤을 넘어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강력한 동력성과 함께 극대화된 연료 효율성으로 22.4km/L의 연비를 실현해 국산차 중 가장 좋은 연비 성능을 보였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K3 '19.1km/L'...디젤엔진 복합연비 최고 아반떼 1.6 디젤·엑센트 1.6 디젤 뒤이어



국산 연비 순위 톱10 자동차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연비 좋은 차는 곧 디젤차로 인 식되던 시대를 넘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값이 15개월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는 점도 연비 좋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요소다. 연비 순위 톱10 자동차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1.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으로 개발된 신형 카파 1.6GDI 엔진과 고효율 영구자석형 모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스템 최대 출력 141ps(5700rpm), 시스템 최대 토크 27kgf·m(1단)·24kgf·m(2~6단)의 강력한 동력성과 함께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22.4km/L(15인치 타이어 기준)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후드, 테일게이트, 백범, 사시부품 등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연료 탱크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하는 등 차량 경량화에 주력해 공차중량 1380kg을 달성했다.

2.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친환경 소형 SUV인 니로는 국내 판매 중인 모든 SUV 중 가장 높은 19.5km/L의 복합연비(정부공고도시 신연비·16인치 휠

기준)를 달성했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발한 신형 카파 1.6 GDI 엔진과 전기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19.5km/L에 달하는 높은 연비는 물론 시스템 최고 출력 141ps, 시스템 최대 토크 27.0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까지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니로는 427리터의 트렁크 용량으로 국산 소형 SUV 중 최대의 적재공간을 확보했으며, 특히 2열 시트를 접어 적재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적재량이 1425리터에 달한다.

3. 기아차, K3 디젤

K3 디젤에 장착된 U-II 1.6VGT 엔진의 복합연비는 19.1km/L(15·16인치 타이어 기준)로 준중형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갖췄다. 최고출력은 136마력으로 가솔린을 넘어서는 가속성능을 발휘한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특히 구매자들이 중요시하는 실 도로 주행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주는 고급형 ISG(Idle Stop&Go)시스템을 적용하고, 자동 변속기의 편익성과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7단 DCT를 적용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슈프트를 적용해 편 드라이브도 가능하다.

4. 현대차, 아반떼 1.6 디젤

아반떼 1.6 디젤에 장착된 1.6 E-VGT 엔진의 최고 출력은 136마력(4000rpm), 최대토크는 30.6kgm(1750~2500rpm)이다. 여기에 7단 DCT를 조합하고 정차시 시동

이 꺼져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주는 아이들링 스톱이 기본 적용되어 있다. 연비는 18.4km/L이다. 연비도 뛰어난지만 6세대 아반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행 안정성의 향상이다. 최고장력 강판 사용을 52%까지 늘리고, 용접 및 접합 부위 확대 등을 통해 차체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5. 현대차, 엑센트 1.6 디젤

엑센트 1.6 디젤은 U-II 1.6 VGT 엔진과 7단 DCT를 통해 복합연비 18.3km/L을 달성했다. 고속도로 연비는 20.3km/L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이다. 소형차이지만 최고출력 136마력에 최대토크 30.6kg·m으로 빠른 반응력과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한다. 차체 자세 불안정시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S)의 통합제어를 통해 제동 및 조향력을 제어해 최적의 차량 거동 안정성을 제공하는 첨단 예방 안전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6.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는 스포티한 에어로다이나믹 콘셉트의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새롭게 적용해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행성능을 가솔린 모델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자동 개폐 시스템과 전면부에 어커티 등을 적용해 공기저항을 줄였으며, 배터

리 용량을 늘리고 효율적인 회생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를 적용해 연비를 17.5km/L로 끌어올렸다. 최고출력 156마력(ps), 최대토크 19.3kg·m의 강력한 동력성과 38kW 고효율 전기모터를 적용해 기존 대비 8.6% 향상된 동력성능을 구현했다.

7.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우 2.0 직분사(GDI)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탑재했다. 기존 제품 대비 4% 향상된 최고출력 156마력(ps)과 5.5% 향상된 최대토크 19.3kg·m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연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속력 또한 뛰어나다. 아슬러 엔진과 모터의 적절한 동력배분 및 회생 제동시스템 효율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8.3% 개선된 연비 18.2km/L를 달성했다.

8. 현대차 i30 1.6 디젤

7단 DCT가 적용된 i30 1.6 디젤 (ISG)의 복합연비는 17.3km/L이다. 최고출력은 136마력(4000rpm), 최대토크는 30.6kg·m이다. 최대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이 1750~2500rpm의 실용 가속 영역 구간이어서 중저속 구간에서 발군의 가속력을 발휘한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6:4 폴딩 시트,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창문을 닫을 수 있는 리모트 윈도 컨트롤 등 경쟁 차량을 압도하는 편의

의 사양을 갖춘 해치백이다.

9. 르노삼성, SM3 1.5 디젤

르노삼성 자동차의 SM3 1.5 dCi 디젤은 한 마디로 '연비 강패'다. 검증된 르노

1.5 dCi 디젤엔진과 독일 게트라크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110마력에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발휘한다. 1750~2750rpm에서 최대토크가 발휘돼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중고속 영역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성능을 발휘한다. 공인 복합연비는 17.7km/L(도심 16.3km/L·고속도로 19.6km/L)지만 실연비는 가볍게 20km/L를 상회할 정도로 연비가 뛰어나다.

10. 쉐보레, 올 뉴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전용 1.8L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모터를 통해 182마력의 시스템 최대 출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용 변속 매커니즘으로 민첩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성능을 제공한다. 말리부 하이브리드에 장착된 두 개의 전기모터는 각 106.1마력과 93.5마력의 최대 출력으로 엔진 동력을 보조함으로써 다이내믹한 가속 및 등판 성능을 발휘한다. 혼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용해 제동 및 감속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물론 구동에 사용되지 않는 유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 한다. 복합연비는 17.1km/L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게임세상에 복주머니 받으러 오세요”

‘던전앤파이터: 혼’ 26일부터 차례상 이벤트 ‘열혈강호’ 한복 아이템 ‘애니팡’ 복권 선물



설 연휴, 게임 세상 속에서 풍성한 혜택을 받자. 주요 게임사들은 설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게임 넥슨은 주요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게임 ‘던전앤파이터: 혼’에선 26일부터 2월8일까지 ‘새해맞이 훈이 담긴 차례상’ 이벤트를 벌인다. 플레이를 통해 야채, 소고기 등 재료를 수집하면 ‘피로도’, ‘소탕권’ 등을 지급한다.

넷마블게임즈는 인기 모바일게임에 이벤트를 준비했다. ‘모두의마블’의 경우 2월10일까지 친구를 초대한 뒤 해당 친구가 접속할 시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설 특집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는 PC온라인게임 ‘크로스사이아’에서 내달 7일까지 ‘복주머니 꾸러미’ 이벤트를 벌인다. 이벤트 복주머니를 통해 30일까지 10분 이상 플레이한 유저들에게 ‘VIP 기간제 충전기’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컴투스 설 이벤트



▲웹젠 설 이벤트

게임빌도 인기 모바일게임에 대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벌인다. 대표적으로 ‘별이되어라!’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접속하는 유저들에게 ‘루비’, ‘SSS급 동료뽑기권’, ‘초월의 정수’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새해 복 주머니’를 준다. 컴투스도 이벤트에 동참한다. ‘서머너즈 워’에선 26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번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면 경험치와 마나석을 2배로 얻을 수 있는 더블 버

닝타임 이벤트를 실시한다.

웹젠도 주요 모바일 및 PC온라인게임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 모바일게임 ‘무 오리진’에선 26일부터 30일까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웃노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한 기념사진을 공식카페에 등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네시삼십삼보도 자사 모바일게임에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삼국블레이드’의 경우 내달 5일까지 금화 소모, 전령 사용 등 게임 내 재화를 사용하는 미션을 수행한 이용자에게 50만 금화, 소탕권 100개, 장수 뽑기권, 천부장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엠게임은 PC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에서 2월1일까지 모든 이용자 에게 경험치와 무공, 생명력 등이 상승하는 ‘설날 한복’ 아이템을 선물한다.

그 밖에도 선데이토즈는 모바일게임 ‘애니팡’에서 복권 이벤트를 진행해 김치냉장고 등 생활 가전 경품을 주고,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28일부터 이틀 동안 최대 100%의 추가 경험치 및 골드 획득이 가능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고향길 스마트하게...돌발상황·도착시간 제공

‘T맵’ 5.0버전·‘KT내비’ 타임머신 기능 추가



설 연휴다.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뵙는 것은 기쁘지만, 교통 대란은 결코 반갑지 않다. 이럴 땐 모바일 내비게이션(이하 내비)을 이용하면 좋다. 특히 국내 주요 모바일 내비 서비스들은 최근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편리함을 더했다.

SK텔레콤의 ‘T맵’은 돌발상황 관련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고 사용자환경(UI)을 개편한 ‘5.0버전’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tbs교통방송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는 물론 행사나 공사 등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교통통제 등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주행지도 상에 곧바로 표시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디러닝 방식으로 사용이력이 있는 목적지나 주소에 대한 음성 인식을 높였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소요시간과 최적 경로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연계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AI 스피커 ‘누구’가 있다면 T맵의 빠른 길 안내 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동차로 이동 시 소요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해준다.

KT의 ‘KT내비’도 최근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목적지에 특정시간까지 도착하기 위해선 몇 시에



‘KT내비’

출발해야 하는지, 미래의 특정시간에 출발하면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예측하는 ‘타임머신’ 기능을 추가했다. 26일부터 30일까지 타임머신 기능 이용자 중 2017명을 추첨해 주유권과 스타벅스 커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기능도 강화했다. 내비 사용 중 전화나 문자가 올 경우, 별도의 조작없이도 안내 화면은 유지되고 발신자에게 “지금 운전 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로 자동응답을 한다. 이 기능은 출발 전 미리 설정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U+내비’는 ‘도착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싶은 상대방의 번호를 지정하면 설정된 시간 단위로 운전자의 현재 위치 및 도착예정시간을 등록된 상대방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김병근 기자